

2021 12  
통권 제14호

# 한국통일협회보

U n i f i c a t i o n C o u n c i l o f K o r e a



제14호

# 韓國統一協會報

U n i f i c a t i o n   C o u n c i l   o f   K o r e a

## Contents

- 04   협회 소식
- 07   제3차 한백포럼
- 20   회원 논단
- 22   회원 경조사
- 25   동호회 활동
- 26   UCOK 마당
- 41   건강 코너



## 협회소식

### ◆ 제4차 UCOK 학술회의

우리 협회는 11.4(목) 전경련 컨퍼런스센터(루비홀)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4차 UCOK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오후 1시30분 정세현 회장의 개회인사와 김형식 상근부회장의 키노트스피치로 시작된 금번 학술회의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5시50분까지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민간부문의 역할과 평화담론 형성"이라는 소주제로 이덕행 고려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양창식 선양하나재단 한국대표의 발제,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 김중태 남북물류포럼 부회장, 김충환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이강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남북경협센터장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은 "뉴노멀 세대의 역할 및 평화담론 형성"이라는 주제로, 김형식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었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이창열 AP글로벌컨설팅 중국센터장, 지창근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사무국장 등이 함께 토론하였다.

제3세션은 대주제 라운드테이블로서, 이덕행 고려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김중태 남북물류포럼 부회장, 김충환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김수일 통일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 이강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남북경협센터장의 토론과 플로어 참석회원들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2년에 걸친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에 이은 위드크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회원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장시간동안 진지하고 열띤 토론의 장이 이루어진 뜻 깊은 자리였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 한방침구교실 운영

우리 협회는 지난 6.1부터 협회 사무실에 한방침구교실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많은 회원님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세현 회장, 최병보 전 통일교육원장, 양재성 이사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침뜸을 통하여 건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서상덕 이사를 비롯한 한국정통침구학회 회원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한방침구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이용은 무료이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 (문의 : 서상덕 이사 010-3043-9315)

### ◆ 제2차 및 제3차 한백포럼 개최

우리 협회는 2021.10.7(목) 르네상스타워 6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백포럼을 개최하였다. "남북경협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는 정세현 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서, 김형석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김종태 부회장과 이강우 운영위원이 각각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의 열띤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백포럼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 마련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협회의 대내외적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1차 포럼은 지난 6.15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의미"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3차 포럼은 “김정은 정권 10년간 남북관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당초 12.16 송년회와 함께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2월 협회보에 지상게재 하게 되었다.

### ◆ 사단법인 한국통일외교협회 출범

(사)한국통일외교협회는 9.24(금) 오후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창립행사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동 협회는 오랜 시간을 통일부 및 정부기관, 학계 등 민간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관여해 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단체이다.

앞으로 동 협회는 국제사회에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의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국민의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창립행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정세현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주한 독일대사, 아일랜드 대사 등이 협회의 출범을 격려했다.

이어서 진행된 창립총회에서는 김형식 전 통일부 차관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이창열, 박광호, 김정노(사무총장 겸임), 김규륜, 김평환, 임미정, 감사에 정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앞으로 동 단체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린다.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존칭생략)

김정노, 김충환, 김형식, 박광호, 박찬봉, 서두현, 양창석, 여상기, 이덕행, 이무일, 이창열, 정동문 (이상 통일부)

고정식, 김규륜, 김평환, 박형중, 유영식, 이규영, 이금순, 이명수, 이상현, 이창형, 임미정, 정대진, 조윤희, 황 옥, 홍지훈, 손현진, 이은정(이상 통일부 외)

#### ◆ 통일부와 정례 업무협의회 개최

우리 협회는 통일부와 정례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일부와 협회간 전반적인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지난 5월 기획조정실과 첫 협의회를 가진 이후 11월에는 교류협력실과 모임을 가졌으며, 12월이후에는 통일정책실, 남북회담본부, 통일교육원 등 각부서와 순차적으로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 ◆ 정세현 회장, DMZ 평화상 수상

우리 협회 정세현 회장은 12.9 강원도와 화천군, 강원연구원,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DMZ 평화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DMZ 평화상은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의 평화실현 의지와 비무장지대 가치 등을 조명하기 위해 2005년 제정했다. 이후 매년 남북 교류 등 세계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0년간 관료, 학자, 시민사회 대표 등 정부와 민간 영역을 넘나들면서 평화통일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헌신해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대상을 수상했다.



## 제3차 한백포럼

[발제]

### 김정은 정권 10년 남북관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김 형 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 1. 김정은 정권 10년 남북관계 평가

-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의 기간동안 남북관계는 아쉽게도 남한의 주도가 아닌 북한의 주도에 의해 변화를 보여왔다고 평가됨. 즉, 10년 기간동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북한 내부 상황과 입장이 변화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명암이 결정되었음.
- 2008년 사실상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위원장은 2017.12월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의 최고 권좌에 올랐고, 이후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강한 국가를 의미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북한을 통치해 왔음.
- 우선 정치강국을 위해 노동당 중심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치문화와 시스템을 안착시켰으며, 군사강국을 위해서는 선대에서부터 추진되어온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성공한 이후 2017년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함.
- 다만 군사강국으로 가기 위한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고 이것이 경제 강국을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 2018년 부터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변화를 위한 행보를 보임.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경제 핵 병진노선’의 성과적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함.
-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협상 결과가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북한은 2019.2월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이후 미국의 ‘상응조치’ 등 자세변화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였음.
- 탄핵 위기에 까지 몰렸던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수의 친서교환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였으나,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변화의 호기가 상실된 결과가 초래되었음.
- 미국과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불만과 함께 탈북민의 대북전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개적 폭파 등 남북관계를 사실상 파국의 상황으로 몰아갔음.
- 이후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과는 ‘강대강’ ‘선대선’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적대시정책’ 철회로 보일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21.7월 들어 북한은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고 2018년과 같은 남북 관계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변화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남북관계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보건 방역에 취약한 북한의 입장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차단하는 등 ‘자체 봉쇄’를 취했음. 현 상황에서는 핵문제 등 북한과 국제사회간 상존하는 갈등요인 해소와 함께 코로나 상황의 진정여부가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 북한 의도 및 향후 전망

- 북한은 북미관계 교착이후 ‘자력갱생에 의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나, 자체 역량으로는 국제사회 제재, 코로나, 자연재해 등 3중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과 2021년 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성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가 필요한 상황임.
  - 북한주민의 경우 북중국경 봉쇄로 인해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물자의 조달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국가배급망에 의한 생필품 공급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알려짐.
  - 아울러 중국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석탄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연간 70억불 규모의 북중 교역이 급락함으로써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 대폭 감소됨.
- 북한의 희망은 노동당 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임. 이를 위해서 이미 달성한 정치 강국과 군사강국의 토대위에서 경제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 정상국가와 주권국가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나오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정 보장을 통한 경제적 성장의 길로 들어 설 것임. 북한 스스로도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어 비핵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84년생으로 스위스 유학경험을 통해 서구문명에 대한 동경이 있을 것이며, 이는 이념이나 체제의 변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서구와 같은 풍요로운 환경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이 강할 것임.
-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평양 거리의 현대화, 문수 물놀이장 개장 등 서구와 같은 모습의 현대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북한 인구의 30% 수준으로 파악되는 ‘8090세대’의 경우 90년대 중반 대규모 식량난에 따른 북한 배급망 붕괴와 장마당을 통한 각자도생의 삶을 경험하였고, 중국 등 국제사회의 생활상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잘 알고 있어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가 큰 세대라고 평가됨.
- 앞으로 북한은 서구경험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의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 건설의 리더쉽과 경제적 풍요를 바라는 북한의 젊은 세대가 어우러져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방의 길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임.
- 중국의 경우 70년대말 집권한 덩소평이 풍요로운 사회주의 중국 건설을 위해 시장 경제요소 도입도 허용한다는 소위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면서 ‘특구식 개혁개방’을 통해 지금의 중국을 가져 올 수 있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이래 5번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였음.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중국을 보면서 시진핑 주석을 자신의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북한이 중국과 같은 성장을 하기를 희망할 것임.

### 3.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

#### 가. ‘국가연합 시대 (남북관계 4.0)’<sup>1)</sup>로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함.

- 앞으로 남북관계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토대로 하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특수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필요에 의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 (일종의 국가연합, 'commonwealth')라는 토대에서 발전시켜 나감.
  - 북한과의 각종 대화와 교류협력은 한중관계, 한-베트남관계와 같은 기준에서 이루어 질 것이며, 이에 맞게 남북관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함.
-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남북관계 4.0 시대’를 열어 감. 정부는 정치 군사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하도록 함.
  -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북한 도발(6.25전쟁, 금강산, 천안함, 해수부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는 관용과 예외 없이 단호히 대처함.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채널에서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한반도 미래문제에 대한 노력을 병행함.

#### 나. 국가연합시대를 위한 7대 실천 과제 (예시)

##### 1)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전면 정비, 민간 남북교류협력 원칙적 자율화

- 정부 내 통일관련 조직 정비 등 통일부 조직 강화와 함께 국방 외교 정보 등 정부내 통일관련 의사결정 구조 변화를 통해 정부의 통일 역량을 강화
- 90년대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 법체계를 개정해서 민간차원 교류협력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부는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결과를 엄정하게 관리함.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을 최소화하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참여 민간부문의 기금 조성 역할을 확대하고, 기금은 민간활동 지원 중심으로 운영함.

1) 남북관계는 ‘1.0 반공시대’, ‘2.0 체제경쟁시대’ ‘3.0 기능적 교류협력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3.0 시대’는 ‘특수관계론’에 입각해서 ‘88년 ’7.7선언’ 이후 줄 곳 북한을 상대해 왔으나,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2) 남북 경상회담과 정부 각료 협의체 상설 운영

-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정상간 합의로 ‘남북간 국가연합시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함.
  - 서울 평양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화상회의 등 수시 협의 채널 운영함.
- 정부 각료협의체를 상설 운영하며 밤샘식 또는 보여주기식 회담을 지양함.
- 남북한 정부와 민간대표 참여하에 ‘남북민간교류협의체’ 구성 운영함.

## 3) 서울 평양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운영

- 남북한 정부를 대표하여 공적인 업무 수행하며 외교관에 준하는 신변 보호 및 특권 면제를 확보함.
- 방북 방남 초청장이 아닌 남북한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에 의한 남북한 출입함.
- 관광, 사업 활동 등 민간에 대한 편의 지원과 신변 안전 보호 기능을 수행함.

## 4) 방송 및 문화 전면 개방, 한류 문화 남북한 공유

- 북한 방송 및 인터넷 전면 개방,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방송 문화 개방토록 제안
- 방송 영화 음악 등 문화분야 남북한 협력 및 국제무대에 공동 진출
- 남북 예술인간 교류 및 공동 활동과 국제무대 진출 적극 지원

## 5) 남북한 경제공동체 설립 협약 체결

- 북한 관광지 공동 개발 및 관광 산업 집중 육성 지원
- 판문점 등 DMZ 지역에 남북한 ‘경제협력 공동사무처’ 설립 운영
-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및 광물자원 개발, ‘동북아 슈퍼그리드’ 를 위한 에너지 협력
- 남북한 상시 통행, 인터넷 연결, 휴대폰 사용 등 자유무역지대화 추진
- 우선적으로 개성 및 금강산관광지구, 북한 경제개발구 중에서 선정해서 시범 운영
- AI, 메타버스, 스마트 팜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남북협력 모델 적극 개발

#### 6)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 민간 교류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반관반민 형태의 ‘남북교류협력 공사’ 설치 운영
  - 민간 단체와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유경험자와의 ‘2인3각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
- 민간과 정부,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남북협력 펀드’ 조성
- ‘북한인권재단’ 가동 등 북한인권법 완전한 시행

#### 7) 미국과 한국의 역할 분담, 북한 핵개발에 대응한 ‘조건부 자체 핵 무장’ 추진

- 확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병행 진전
  - 북한 변화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상황에 맞게 병행하면서 당근수단의 전략적 사용
  - 미국과 협의하여 비핵화 진전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하 국내기업 및 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대북제재 면제 및 예외 인정
- 북한의 핵보유국 상황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에도 NPT 체제와 IAEA 관리는 수용함.
  -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직접 당사자이자 핵무기 위협에 가장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해서 남북한이 직접 협의하고 미·중 등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로 전환함.
  - 북한에게는 국제사회와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출발점으로 ‘NPT 체제에 복귀하고 IAEA 모니터링 요원의 북한 상주를 허용’하도록 제시함.

## [토론 1]



서 두 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책지도교수)

발제문은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의 남북관계를 북한 내부 상황과 입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변화의 돌파구 마련을 도모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고, 현재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로 인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갈등, 코로나 감염병 상황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발제자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하며, 발제문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몇 마디를 보태고자 한다.

발제문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연합(남북관계 4.0) 시대’로 도약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7개 실천과제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국가연합(Commonwealth)’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며,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라는 보편성을 보다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국가연합은 국가연합의 대표적인 사례인 英연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과 같이 ‘상호 독립된 동등한 지위의 주권국가의 자발적인 연합으로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연합’(안경환, 1993)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남북연합이든 국가연합이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남북간 상호 협의에 의해 그 틀과 내용이 정형화되어 갈 것이지만, ‘국가연합’을 통한 남북관계 4.0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첫째는 국가연합 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과의 관계성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 일정 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연합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가연합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정부각료협의체를 상설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정상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례를 유념하여 지속성을 담보하는 공고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가연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과 함께 국가연합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사회 내부적 공감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북미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하는 점이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동력을 얻을 경우, 남북관계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내부의 여건이다. 이른바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민위천(以民爲天)을 표방하며 내부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1월 북한이 제8차 당대회의 새 국가발전5개년계획에서 강조한 핵심주제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지만, 직면한 대북제재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국경봉쇄, 자연재해 등의 3중고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지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와 지금처럼 ‘자력갱생 버티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기간 무관심 할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남한의 대북정책이다. ‘22년 초 새로운 리더십이 결정되면 대북정책의 성격도 정해질 것이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공존을 추구할 것이지만 남북관계 발전의 폭과 깊이 그리고 속도와 대화조건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도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 [토론 2]



권영경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장)

※ 김형석 이사장님의 발제문은 김정은집권 10년과 문재인정부하 남북관계 전반을 사실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됨. 따라서 이에 바탕을 두고 보완적·추가적 차원에서 토론자의 그간 고찰들과 고민들을 정리해보고자 함.

## □ 김정은집권 10년의 개관

-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 취임으로부터 시작된 김정은정권 10년은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정상국가화전략을 현실화, 안착시키고자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이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는 북한식 담론에 의하면, 대내정치적으로는 당 중심 국가체제로서 대외적으로 정시사상강국, 군사강국, 사회주의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 등을 현실화한 국가임.
- 이는 비교체제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처럼 세습체제로서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국제질서 및 한반도질서속에 안착시키고자 하는 의도로서, 여러 논란과 논쟁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핵을 보유한 사회주의개발도상국가’로의 방향성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음.
- 김정은정권이 출발할 당시 북한의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3가지였다고 생각됨.<sup>2)</sup> 즉 ①‘핵을 보유한 최빈국’으로 존재할 것인가, ②‘핵을 포기한 사회주의개발도상국가’가 될 것인가, ③‘핵을 가진 사회주의개발도상국가’였다고 생각됨.
- 여기서 ①의 선택지는 3대 세습정권이 정상국가화 목표로 새로이 내걸고 있는 인민생활향상, 나아가서 김정은주의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구호와 어긋나기에 선택지가 될 수 없었음. ②의 선택지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피포위의식이 강한 북한체제가 중단기적으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였음. 김정은정권이 김정일집권 시기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던 핵능력 고도화 시도를 불과 4-5년 사이에 상당히 성급하게 몰아붙여 실행하고, 2017년 ICBM인 화성15호 발사 성공에 이어 5개월 후인 2018년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으로의 전환을 선포한 것을 보면,

2) 조성렬, “최근 동북아정세 전망과 남북관계”, 한반도개발협력네트워크 화상워크숍 발제문(2021.11.13.) 참조

③의 선택지가 김정은정권의 체제생존전략 경로였다고 볼 수 있음. 아마도 중국이 핵실험을 하고 평화적 안보환경의 역지력을 확보한 후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간 것을 벤치마킹하였을 수도 있음.

- 그런데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시도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정들을 살펴보면 최장기적으로 ③의 선택지에서 ②의 선택지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그간의 관찰에 의하면 김정은정권의 선택지는 체제유지와 안보우선을 근간으로 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유동적 탄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sup>3)</sup>
- 김정은정권이 집권초기부터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線으로 연결되는 경제개발구들을 각 지방마다 개설하고, 최근에는 처음으로 UN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를 제출함으로써 다자협력방식의 경제개발방식 수용을 내비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집권초기부터 “경제건설을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2013년 3월 경공업대회 연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서도 볼 수 있음.
- 김정은정권은 이런 정상국가화라는 전략목표를 지향하며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김정은체제의 생존전략을 실재화하는데 주력해왔음. 그러나 2020년 이후 기대했던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 그리고 예기치 못한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현재 원래 의도치 않았던 4단계 국면의 딜레마속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음.
- 1단계 김정은집권 초기(2011.12.30.~2015년): 선군체제에서 당중심 국가체제로의 강화에 주력하며 후견인체제를 청산하고,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당·정·군 권력 장악을 우선시 하면서, 대외적으로 병진노선의 선포를 통해 핵개발과 경제개발의 병행 추진.
- 2단계 전략적 지위 확보를 위해 핵능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2016년~2017년): 대외적으로 병진노선의 실재화와 더불어 핵보유국 지위 선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을 지속 법제화·제도화.
- 3단계 전략적 지위 확보 선포 후 한미의 관여전략에 호응한 시기(2018년~2019년):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대외여건 조성을 목표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호응 하면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으로 전략노선 전환
- 4단계 대북제재의 본격적 영향 및 코로나 팬데믹현상 도래로 김정은체제의 딜레마가 가중되고 있는 시기(2020년~현재): 경제건설에 우호적인 평화적 환경 조성이 절실 하지만, 체제안위가 우선이라는 선포를 하며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 전략으로

3) 2020년 7월 10일 김여정 담화, “결코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당 창건 75주년(2020.10.10.), 제8차 당대회에서의 김정은연설에서 핵선제불사용과 불납용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장기적으로 ②의 선택지 방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생각됨. 어찌보면 북한은 핵시설의 일부 폐기는 수용하되,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는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하에 체제완화→경제개발을 위한 다자 국제개발협력의 가능성 획득 등을 최대 상한선으로 추구한다고 생각됨.



전환, 3중고속에 실용적 경제정책 일부 후퇴, 경제시스템을 정비보강하며 체제생존의 물질적 토대 유지에 주력 집중.

- 이상 김정은집권 10년동안의 정상국가화를 향한 과정들을 개관해보았는데, 김정은 체제는 현재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의 기대가 장벽에 부딪힌 채 ①의 선택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김정은정권에게 선택지 ②는 불가능한 것일까? ③의 선택지 방향성은 달성할 수 있을까?

## □ 김정은집권 10년의 과정속에서 살펴본 남북관계

- 김정은집권 이후 남북관계 전반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려면, 김정은정권의 정상국가화를 향한 국가전략, 생존전략의 방향성속에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특징으로 정리됨.
  - 첫째, 김정은정권 역시 과거와 변함없이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남북관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남강경과 대남유화를 강온 양면전술로 구사하였는데, 김정일시대와 달리 “우리민족끼리”의 담론을 거론하지 않은 가운데 과격한 남북관계의 단절, 차단도 서슴치 않는다는 점임.<sup>4)</sup> 김정일시대에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단절-재개의 반복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교류협력 통로는 대체로 존재시켜 대결과 교류협력의 양면성이라는 남북관계 특징이 존재하게 했었음. 그러나 김정은정권은 선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업적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는 태도로 교류협력 단절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 김정은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아버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었음. 이는 김정은정권이 근본적으로 ‘국가책무력 완성’이라는 프로토콜에 매달리는 원인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체제생존전략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위상을 재설정한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음.
  - 둘째, 김정일정권이 자신들 시각의 통일지향적 정책 관점에서 대남정책을 추진하였다면, 김정은정권은 책무력 고도화 정책에 필요한 변수로서 대남정책을 추진하는 점이 고찰된다는 점임. 김정은정권은 개괄적으로 보면 보수정권하에서는 초강경-부분 유화-강경정책을 왔다 갔다하며 남북관계에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고, 문재인정부하에서는 군사적 긴장도가 낮아진 반면 강경정책-유화정책-무시정책으로 일관해오고 있음. 본래 과거부터 북한의 대남정책은 북한 내부정세, 남한의 대북정책, 한반도정세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받아 전개되어왔음. 그러나 김정은정권하 뚜렷한 특징은 김정은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

4)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의 단절, 남북협력사무소 폭파, 김정은의 금강산관광사업 시설물 폭파 발언, 대남담당 비서의 부재화, 김여정 모든 남북관계 관련 조직 및 기구 제거 가능성 발언 등.

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변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sup>5)</sup>라고 말한데서 보듯이, 선명하게 선미후남(先美後南)의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임. 그 결과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민족내부의 특수성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되어 버렸음.

- 셋째, 김정은정권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비본질적 문제(이산가족 상봉, 보건의 인도적 협력 등 민족동질성 회복문제)와 관련된 교류협력을 거부하고, 본질적 문제(적대시 정책 철폐, 첨단군사장비 반입 및 개발,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의 해결에 우선할 것을 요구하며, 남북관계를 북한 대외관계의 한 측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달리 보면 김정은정권은 기능적 접근방식의 남북관계를 체제안위에 위협스럽게 인식하고, 자신들이 목표로 삼는 정상국가화전략 내지 경제개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음. 북한이 말하는 비본질적 문제는 사실 남북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대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시대와 달리 이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남북관계 흐름을 만들게 하는데 거침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평가와 통일 관련 당규약 개정의 의미

- 문재인정부 들어와 2017년도에 최고조로 달했던 한반도 군사긴장이 완화되고, 2018년도 이후 북핵과 ICBM 실험이 중단되며, 남북간 사이에 9.19 군사합의의 틀이 아직 유지되고 있음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나아가서 남북간 협상시 북핵문제도 언급되는 의제의 확대, 6자회담 파탄 이후 다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일정 가동도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됨.
- 그러나 북핵 고도화 및 고강도의 대북제재 국면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제약성은 그 한계가 뚜렷했으며, 김정은정권의 생존전략속에서의 대남관계 재설정에 대한 세심한 대응전략이 부족했고, 나아가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격화되는데 따른 민첩한 대응전략도 미진했음은 한계가 아닌가 생각됨.
- 김정은집권 10년기간 동안의 대남정책, 남북관계의 특징을 살펴볼 때, 김정은정권은 정상국가화전략에 올인하면서 남북관계를 일정한 등거리로 두고 사실상 나름 관리하였다고 생각됨. 남북관계를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측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2018년 북미관계 교착 해소와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 남한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삼았고, 4.27 판문점선언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것을 최초로 문서화해 ‘한반도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남한의 역할을 기대했었음.

5)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 시정연설, 노동신문 2019.4.13.

이렇게 보면 2018년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는 북한 자체의 국면전환 전략도 가능했지만,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보다 작동되었던 것이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9.19 공동성명에 남북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사업 ·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 동해관광특구 조성 등도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정세의 변화에 따라 경제개발의 역할로 진전되어가기를 기대하기도 했었으므로, 통일지향적 민족내부 관계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가능한 교류협력조치 보류 · 거부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에만 매몰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sup>6)</sup>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남북관계 차단, 대화거부, 노골적 무시행태 등을 볼 때 김정은정권이 생각하는 남북관계란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재차 검토하게 함.

○ 사실 김정은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Two-Korea를 지향하는 대남전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었음.

- 2013년 평양 역도선수권대회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를 조선중앙TV에 내보내기도 했고, 2015년에는 ‘평양시’를 선포해 남북한간 시차를 도모하기도 했으며(나중에 다시 북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의 통일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했음.
- 즉,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위한 사업총화보고에서 “통일이라는 꿈은 아주 멀어졌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당규약에서 당의 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개정하고, 당원 의무에서 조국통일 내용을 삭제하였음. 그리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조선노동당은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개정 내용이 들어감.
- 이는 김정은정권이 장기적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남북한 국력의 심각한 비대칭성을 경계하며 체제안보가 확보될 때까지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는 거리를 두겠다는 측면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음.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두고,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든가, 국가연합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등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기준의 해석이 아닌가 생각됨.
- 김정은정권은 시장화 확대에 의한 주민의식의 변화, 세대교체로 인한 특히 장마당 경제에 바탕을 둔 청년세대의 의식변화로 남북관계의 접촉점이 많아지는 것에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남한의 군사력이 세계 6위로 올라서고 첨단화되어 가면서 산전고생 끝에 겨우 이룩해 놓은 비대칭 균형의 재불균형화, 군비 경쟁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가능성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됨.

6) 물론 2018년 당시 2차 북미회담 진전에 올인하며 가능한 남북교류를 보류한 점에는 우리 정부도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음.



## 회원 논단

### 평화적 흡수통일



**이 성 원**

(남북체육교류협회 상근부회장)

몇 달 전 야당 대표가 평화적 흡수통일이 자신의 통일방안이란 발언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큰 혼란 없이 유아무야로 끝난 해프닝이 있었다. 근래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의외로 평화적으로 북한을 받아들여(흡수하여) 통일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독일도 그렇게 통일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오해가 너무 크기에 바른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먼저 ‘평화적’이라는 말과 ‘흡수통일’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흡수통일은 무력에 의한, 또는 북한자체의 혼란, 붕괴 등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전혀 평화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이 우리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최상의 국익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정권이 오래지 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체제, 정권, 주민에 대한 바른 인식이 결여된 탓에 국제 제재와 경제적 난관, 코로나 상황 등으로 북한정권이 오래 못 버틸 것이라는 기대 섞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후 우리나라 북한전문가 설문조사에서 70-80%가 5년 내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했다. 20%는 10년 내, 1-2명은 20년내 붕괴를 예측했다. 즉 북한 전문가 모두가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2014년 국내 최고 정보기관 간부들의 송년파티장에서 새해 통일원년을 축하하는 건배를 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3-4년 못간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더욱 공고화되고 경제상황도 우리의 평가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마지막으로 독일통일의 교훈이다.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된 것은 동독이 붕괴되어 서독으로 흡수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동독주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선택에 의해 서독연방으로 편입되면서 통일을 이룬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진보 보수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대동독 포용정책의 일관성있는 시행으로 동독주민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 스스로 자유서독으로 편입되길 희망하게 만든 동방정책의 승리인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이 된다는 생각은 너무 유치하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고 주변 국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북한의 붕괴가 통일로 이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북한 붕괴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북한은 중국을 선택할 것이고 한반도 북부는 우리의 역사에서 멀어지는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 과거 통일신라시대와 후삼국시대를 겪으면서 고구려의 방대한 지역이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리라고는 당시 우리 선조들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꿈은 한낱 헛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중요하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기위한 넓은 마음의 정책이 긴요한 이유이다. 무너진 남북간 신뢰를 다시 쌓아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고 평화정착을 이루어 남북의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 이루어 오래지 않아 민족통일을 이룰 날을 꿈꾸어 본다.



## 회원 경조사

### ❖ 삼가 고인의 冥福을 빕니다.

전연숙 운영위원 모친 별세(9.16)	곽병채 이사 장인 별세(11.24)
구본태 명예회장 별세(9.20)	서두현 운영위원 빙모 별세(12.9)
강보대 운영위원 별세(12.16)	

### ❖ 자녀의 결혼을 축하 드립니다.

전승호 운영위원 아들 결혼(8.30)	권영범 운영위원 장남 결혼(11.12)
이재호 운영위원 장남 결혼(10.23)	이석필 회원 장남 결혼(11.18)

### ❖ 왕성한 활동을 축하 드립니다.

이영일 고문 민족통일광주시협의회 ‘통일리더양성교육’ 특강(12.8)
정세현 회장 DMZ 평화상 대상 수상(12.9)
김연철 고문 민주평통 인천중구협의회 ‘평화통일공감토크콘서트’ (12.16)
임동원 고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학술회의 축사 (12.13)
천해성 전 차관 민주평통 베를린 청년컨퍼런스 기조강연(11.27)
김형석 상근부회장 KBS뉴스 “남북의 썰” 고정 출연
김천식 전 차관 문화일보[오피니언]시평 기고(12.16)
이관세 전 차관 한·미 평화통일포럼 개최(12.10)

## ❖ 「회원 동정」게재 안내

「한국통일협회보」에는 회원님들의 동정 및 주소·전화번호 변동사항, 저술·수상·학위취득 사항, 세미나·포럼·강연회, 수필·시·사진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 경조사 연락 안내

회원님들의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시 소정의 경조금(화환)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 자녀 결혼: 10만원 또는 花環                      \* 본인 별세: 20만원(弔慰金 및 弔花)
- \* 부모·배우자 별세: 10만원 또는 弔花            \* 빙부모 별세: 협회 弔旗 비치

## ❖ 회비 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통일부 등 외부 기관단체의 일체 지원 없이 전적으로 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회원 경조사 및 친목, 협회 운영 활성화 및 각종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年회비는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운영자문단 50만원, 이사 및 감사 30만원, 운영위원 15만원, 일반회원 5만원**입니다. 협회 정관(제6조)은 회원의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계좌번호 안내 ♥

○ 농        협	0 3 2 - 0 1 - 1 8 4 1 3 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체   국	0 1 0 0 4 1 - 0 1 - 0 4 4 0 5 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리 은 행	1 0 0 6 - 4 0 1 - 4 3 6 6 6 2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회비 납부 현황(2021.1.1.~12.19)

직 책	회 비	납부 현황
고 문	임의	
명예회장	100만원	서극성(100)
회 장	100만원	정세현(100)
부회장	50만원	김방재(50), 전경만(50), 김형석(50), 홍양호(100), 고경빈(50), 김형기(50), 이관세(50), 권영경(50), 김중태(70), 박흥렬(15)
운영자문단	50만원	김남식(30), 황부기(50)
이 사	30만원	박희봉(30), 김수일(45), 객병채(30), 이용현(30), 김충환(30), 김영도(30), 최영일(30), 정부락(30), 변만근(30), 조규봉(30), 임병철(30), 객정택(30), 이준우(30), 양재성(30)
감 사	30만원	이강락(30), 장상호(30)
운영위원	15만원	김영상(15), 진준남(5), 한상학(15), 원기선(15), 황병일(5), 김용환(15), 우계근(5), 객한근(15), 홍면기(10), 윤경태(5), 최문현(15), 김광희(5), 사순문(5), 권영범(15), 최수근(15), 김연철(15), 이정수(15), 김석진(15), 김선윤(15), 전흥기(15), 송길성(20), 문대근(15), 김의삼(10), 박경석(5), 천창기(5), 윤재훈(15), 박정열(10), 김한국(15), 한안석(15), 송병각(15), 전승호(10), 정대천(6), 장정자(15), 윤정원(15), 심용창(10), 신재표(15), 김창수(15), 이종렬(15), 황성호(15), 박 극(10), 양창석(15), 윤용범(15), 김용규(15), 서두현(15), 백원필(5), 김화동(15), 김웅희(15), 유봉학(5), 김희진(15), 박하진(15), 김문호(15), 김진도(15), 이무일(30), 김명영(15), 한화석(5), 유재윤(10), 강기찬(15), 정동문(15), 이덕행(15), 이금순(10), 이창열(5), 송승섭(20), 손인교(15), 배광복(15), 홍재형(15), 이종철(10), 조종남(15), 이은택(15), 이강우(15)
일반회원	5만원	권완규(5), 전윤태(5), 유후자(10), 김병욱(5), 임순희(10), 최우섭(5), 이문자(5), 이준학(5), 정세진(5), 이영국(5), 이규산(5), 정희재(5), 황의준(5), 정수영(5), 이학용(5), 권진호(5), 김명자(5), 박선미(5), 조순자(10), 김구용(5), 이동호(회)(5), 김순옥(10), 신영욱(5), 신광미(5), 이동우(5), 김병수(5), 이숙자(5), 김영남(5), 김은희(5), 정대천(5), 박승운(5), 이창섭(10)
준회원	2~50만원	
합 계		131명 / 2,366만원

\*후원금 : 신일기업(서울사이버대)(3,000만원)

\*사무실 구입기금 : 정세현(3,656,000원), 김방지(100만원), 조규봉(50만원), 김영구(50만원), 이덕행(50만원)

\*광고협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0만원)





## 동호회 활동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동호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회원님들께서 마음으로 늘 같이 하시고 자주 연락하심으로 돈독하고 우의 깊은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현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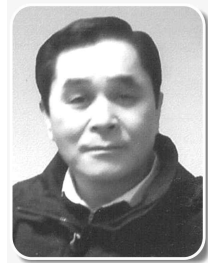
동호회명	회장	모임/장소
산우회	김원호	매월 셋째 목요일
골프회	이재호	매월 첫째 화요일, 베어크리크컨트리클럽
기우회	김용재	매월 둘째 목요일, 한국기원(종로3가) 14:00
기독신우회	이정수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들꽃모임	온경성	짝수 월(격월) 둘째 주 화요일
한마음봉사단	김명영	매월 첫 월요일 11시~14시 (강북구노인종합복지관)
七夕會	김영일	격월(홀수 월) 넷째 주 목요일
상록회	조영규	월 2회 짝수 주 토요일
초수회	임태순	매월 첫째주 수요일
白雲會	김석진	매분기 둘째달 셋째 화요일
통마회	김영남	매분기 마지막 달 둘째 화요일
두목회	김의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이금회		격월(홀수 월) 둘째 주 금요일
통우회		수시
교육(주)		수시
통친회		격월



## UCOK 마당

수 필

### 정년 채워 연금이나 올릴 것이지,



윤 용 범  
(운영위원)

습관처럼 일어나 출근하려니 갈 곳이 없었어요.  
그 허전함이라니요?

물론 한 동안 해방감에 신이나기도 했지만 아니지 싶더라고요.  
인생 2모작을 모색했지만요.  
행정사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관심도 없었고요.  
알지도 못했어요.

하니 리무진버스 운전사가 희망이다 싶었지요.  
7전8기 끝에 애써 대형1종 버스트럭 운전면허를 취득했지요.

제가 세상을 너무 몰랐지 싶어요.  
리무진버스는커녕 아들이 어렵사리 알선해 준 것이 정화조청소차 운전사였지요.  
월급 130만원에 열심히 뚫 더 푸면 20만원 더 준다고했지요.

내심으로 다짐했지요.

‘좋다,

똥은 기계가 푸지, 내가 푸잖나?

등줄기에 땀나게 똥 퍼 150만원 용돈 벌어,

감사헌금도 내고 한국통일협회 회비도 내고 협찬도 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협찬하고,

동창회비도 내고 축의금도 내고 부의금도 내야지,

주민센터 댄스동아리 회장으로 협찬해서 품위도 지키고,

아무튼 마누라께 손 안 벌리고 자급자족해야지,

해서 마누라께 칭찬받자구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하지만 마누라가 적극 만류했어요.

우리 세 식구 웃다가 뒤집어 졌고요.

마누라 왈,

“여보!

우리학교 여선생님 남편들은요.

변호사다 법무사다 건축사다 모두 돈 잘 벌어준다고 자랑만 해요.

하거늘 당신은 MB정권에 찍혔으면 살려달라고 읍소해 정년 채워 연금이나 올릴 것이지,

무얼 그리 잘 낫다고 일찍 기어 나와 정치판에서 말아먹고,

이제와 냄새나는 똥차운전이라니요?

나도 같이 똥 퍼야 하냐고요?

나 자존심 상해 선생질도 못해 먹겠어요.“

이어 하는 말이요.

“행정사 자격시험이 생겼데요.

우리 학교 언니네 아들도 사법고시 수차례 낙방하고 행정사 시험 준비한데요.

당신은 재직 중 직무수행상 두 명의 변호사 직원의 상사였다면서요?“

해서 행정사가 무엇인지 검색을 했고요.

행정사협회와 연결이 되었지요.

주저 없이 행정사창업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행정사 선배 교수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지요.  
순간 혼자 원망조로 중얼거렸고요.

“우리 통일꾼 직장 선배들은 나가 뭐하고 계신다냐?  
다른 부처 퇴직자들은 행정사랍시고 또랑치고 가재잡고 꿩먹고 알먹고 짬짜미로 다 챙겨  
먹는데,  
고급스런 통일논의 만 하면 누가 떡을 준다냐?  
밥을 준다냐?  
그래 어디 통일한국 평양시장 나갔다더냐?  
개성시장을 한다더냐?

청춘을 다 바쳐 통일성업에 헌신했건만 ‘빨갱이들에게 다 퍼다 주었다.’는  
애먼 소리나 듣고,  
내 청춘을 돌려다오,  
억울해서 못 살겠네 그랴“

죄송해요.  
웃자고 하는 소리야요.

제 옛 직장 선배들 참으로 진정한 선비들이예요.  
나와 보니 세상 구석구석 안 썩은 곳이 없지 싶고요.  
아무개처럼 50억은 못 챙겨도 5억도 아니 5천만원도 못 챙긴 놈만 바보지 싶더라니까요.

우리 선배님들만이 감히 세상을 향해 청백리를 자처해도요.  
누가 시비할 자 없는 만고의 청백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비록 우리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붉은 수령의 대응이 불만스럽기도 하겠지요.  
어느 미치고 환장할 정치인이 느닷없이 우리 통일부를 폐지한다기에 기겁했지만요.  
훗날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통일꾼들을 기억해 줄 것으로 믿고요.  
남북관계 발전과 한 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해요.

각설하고요.

사실 행정사를 전혀 모른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간 제게 행정사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이었지요.

청소년 시절 인천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요.

경찰공무원 퇴직 후 행정서사로서 대서소를 운영하는 모습이 별로였지 싶어요.

더구나 금방 대서소문을 단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지금은 행정사업계에 고위직 공직자 출신들도 많아요.

행정의 달인으로서 경륜과 실력을 겸비했고요.

인생 2모작은 물론이고요.

보다 저렴한 수임료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의뢰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요.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로서의 품격과 공신력을 높였지 싶어요.

저도 스스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면서 평생직장인으로 살아가요.

인테리어도 곱게 사무실을 차려 준 마누라의 충고가 고마워요.

“두 번 다시 허황되게 정치판 기웃거리지 말고요.

재직 중 행정경험과 법률적 소양을 살려 보세요.

정치 말고도 뜻있는 일이 많아요?

돈이야 벌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고요.

놀아도 내 눈 앞에 보이지 말고 사무실 나가 놀아요.”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기지 싶어요.

마누라의 선택이 현명했지 싶고요.

평생 직장 삼아 평생 공직자인양 살아가는 나날이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자부해요.

혹자는 충고랍시고 말해요.

“요즈음 변호사들도 죽을 맛이라던데 행정사 그거 운영비나 버냐고?

당신 왜 그리 불쌍하게 사냐?

막걸리나 한잔하게 어서 나오시게나 “

내심으로 혼자 웃곤 해요.

‘나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노느니 염불한다고 공부해서 남 주냐고요?

막걸리 마시고 해롱거리느니 내 하나 뿐인 귀여운 손녀에게 향기 나는 젠틀맨 할아버지로  
남을 거야요.

소위 꼰대 할아버지 말고요.

기라성 같은 전문가자격사들이 적자생존코자 경쟁하는 법률시장에서요.

헌법 민법 형법 기본 3법은 물론이고요.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국제법, 지적법, 등기법, 건축법, 주택법, 세법 등으로 스스로 무  
장한 제 노하우를 잘 모르시네 그라,’

최근 행정사법 개정으로 기존의 난립했던 행정사 단체가 모두 청산되고요.

대한행정사회 하나로 통합되어 역사적인 새 출범을 했어요.

전 국정원장이자 김만복 행정사사무소 대표께서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고요.

국민들을 실력과 경륜으로 섬기고 신뢰받는 행정사 되자네요.

취임 일성이 존경스러워요

저 또한 9년차 행정심판 전문행정사로서 이사에 선임되었지요.

전국에 3만여 행정사 정회원과 37만여 예비회원을 대표하는 법정법인이에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행정사의 미래는 밝아오지 싶어요.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희망해요.

그 좋은 스펙들 갖고 왜 주저하는지 의아해요.

비록 내일은 북망산천을 간다고 해도요.

오늘은 도전하자고요.

실패를 두려워 마시고요.

잃는 것이 있다면 분명 얻는 것 또한 있지 싶어요.

수입은 개업행정사의 능력과 영업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인터넷에서 대한행정사회를 검색해 홈페이지 접속하시고요.

창업교육 안내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이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지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테고요.  
 훗날 제가 도움이 되는 인연이었다고 고백하실 것으로 믿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계획해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늘이시니요.  
 훗날 먹살 잡힐지는요.

“네 녀석이 한국통일협회보에 올린 글보고 개업했다가  
 수입은커녕 빚만 잔뜩 졌다.  
 그렇지 않아도 퇴직 후 눈치밥 주던 마누라가 뭐 잡고 나가 뒤흔다.

이 녀석아!  
 왜 헛 소리는 작작해서 남 망하게 만들었다냐?  
 너나 혼자 망할 것이지,  
 도움이 안되네 그랴“

선택은 자유야요.  
 만수무강하시와요.

## 順天사람(4)



최 승 호  
(운영위원)

中都市인 의정부시에서 번두리에 위치한 녹양동은 조선왕조 때 軍馬를 조달하는 牧場이 었습니다. 내가 이사 왔을 때는 주변의 논밭은 정겹게 살아 있었고 봄에는 나물 캐는 아낙들이 많았으며 마을에는 아직도 한국농촌의 풍속과 정서가 살아 있었습니다. 농가의 폐기물 소각으로 온 마을이 연기로 가득한 경우가 자주 있었고 겨울에는 밤의 정적을 깨는 찹쌀 떡 장수의 외침도 울렸으며, 한적한 시골도로에 오토바이 mania 들이 모여 밍살스러운 살인적인 굉음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용한 시골서 가끔 멀어져가는 구급차의 급한 사이렌 소리는 순천의 어머님 건강에 대한 생각도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로가 신설되고 마트와 상가건물들이 들어와 녹양동은 곧 인구 2만의 지역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녹양동은 성당1곳 외에 대소 교회가 22개소나 있는 ‘십자가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예수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바(전국적으로 1만개) 거기다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Jesu, J는 默音)는 중국인의 한자音借로 “基督”(Jīdū)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기독교”는 중국어에서 유래합니다.

우리 집은 녹양대림아파트 고층(11층)에 위치하였기에 늦도록 불이 켜 있는 이웃 棟의 방들이 눈에 들어올 때면 靑雲大望의 꿈을 간직한 미래의 주인공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라, 퇴직 후에도 빵을 위해 공부해야하는 나는 침대로 가지 못하고 다시 책상에 앉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리는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唐왕조는 詩문학이 왕성한 詩왕조였습니다. 盛唐期에 돋보이는 시인이었던 李白(李太白)은 詩題 “行路難”에서 인생의 좌절과 희망(李白은 정관계진출을 갈망했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는 이 시의 한 구절을 음미하며 많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行路難 行路難(행로난 행로난)

세상살이 어렵고

가는 길도 험하여라



多岐路 今安在(다기로 금안재)  
 인생은 굴곡과 갈림길이 많기도 많으니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安) 있는고?  
 長風破浪會有時(장풍파랑회유시)  
 거센 바람이 물결(浪)을 부수는 때가 오면  
 直掛雲帆濟滄海(직괘운범제창해)  
 높은(雲) 돛대를 곧게(直) 걸고(掛) 차가운 바다 건너리(濟)

\* 私見：長風은 세상변화/浪은 변화에 저항하는 기존 사회관행과 제도

나는 녹양동자치센터의 한자교실 운영을 맡은 후, 낮에는 수강생 지도에 성심을 다했으며, 밤에는 한자교재의 각각본 제작 및 수정에 필사적인 노력을 감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시중 출판물을 교재로 채택할 경우 재고 품질이 되거나 절판인 경우가 많아 중간에 들어 온 수강생은 교재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각각본 제작에 자신이 넘쳐 이 교재를 “국민한자교재”로 만들어 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거듭거듭 수정 보완하는 蠻勇(만용)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舊 각각본을 소지한 학생들에게는 新 각각본을 무료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나는 한자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제를 선창하고 수강생들이 함께 큰 소리로 이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마치 교실을 닦으면서 구구단을 외웠던 아득한 초등학교 어린 시절로 다시 가고 싶은 듯.

“한자는 한자로 만들어져 있다.”

이 命題가 있기 때문에 한자破字 공부ga 시작됩니다. 파자는 수학적 표현을 차용하면 한자의 因數分解입니다. 나는 파자공부를 통해서 모든 한자는 일획(有名일획 및 無名일획)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수한자(214자)와 구성한자(135자)를 만들고 그것들이 조합하여 보다 더 필획수가 많은 한자가 만들어 진다는 인식에 도달하도록 한자공부를 지도했습니다,

파자공부는 한자運筆교육의 중요한 기초수단입니다. 安東의 어린이들이 전래의 “파자놀이”를 한다는 말을 듣고 “역시”하며 선조님들의 先見에 감탄했습니다.

중국 청나라 강희황제는 세상에 출현한 모든 한자를 정리한 “字典”을 만들면서(康熙字典) 한자모양의 변형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字體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형되는 것을

막는 내부통제장치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每 한자에 필획수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각 한자의 필획 수는 自筆者가 스스로 자신의 글씨에 대한 正誤를 검열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녹양동의 예산지원으로 시중서점에서 샘플로 수집한 한자교재들은 “과자와 필획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자는 중국 진시황의 문자통일[小篆採擇]이후에 감옥의 奴隸獄吏(노예옥리)인 程邈(정막)에 의해 한자字體에서 둥근 모양과 곡선이 사라지고 직선화를 이루었습니다(이를 속칭하여 ‘예변’ 또는 한자의 근대화라고 함).

감옥에서 진행된 “隸變(예변)”은 일반사회의 한자모양도 隸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중국 삼국시대에 魏(위)나라의 鍾繇(종요)가 한자의 직선화를 더욱 강화하여 楷書(해서)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해서’ 이외의 한자모양 즉 갑문, 금문, 대전, 소전, 예서, 행서, 초서는 모두가 圖案的인 한자모양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자쓰기 공부는 당연히 해서입니다.

나는 한자를 처음으로 익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및 성인들이 주변에서 圖案的인 한자들이나 해서체의 略字들을 목격했을 때의 당황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中日의 출판물이나 이들 국가의 여행지에서 우리가 배운 해서체의 正字와 다른 한자모양 특히 일본의 略字體나 중국의 簡體字를 만났을 때의 당혹감을 상상해봅니다. 이 상상은 한자공부를 지도하는 교사의 중차대한 유의점입니다. 나는 다년간 한자/한문학습 지도를 하면서 도안적인 한자서체의 戲書가 예술(서예)로 되어 과거에 낙방한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 탐닉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문자철학의 빈곤으로 대를 이어 사회에 미만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자 및 한문공부는 물론 실용학문, 자연과학 및 고등수학의 발전을 沮害하는 악영향을 미쳐 왔으며 終局에는 동양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한 하나의 素因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의 私見에 대해 ‘서예는 마음을 연마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예술이다.’라는 反論도 있을 것입니다.

서양의 청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띄우고 오지로 탐험 나갈 때에 당시 조선의 청년들은 관념의 유희와 ‘글씨 쓰는 붓 놀이’에 탐닉하고 언필칭 서예가의 ‘運筆之妙’에 대한 탄성과 지극한 흥미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文弱의 결과는 如何 !

중국 첨단 군사과학(로켓) 발전의 기초를 닦은 錢學森(첸쉐쎄: 1911~2009)은 抗日一念

으로 1935년 미국유학을 떠나 미국의 국방과학 분야에서 장기간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新중국에 귀국하려고 출국을 신청 했을 때 미국정부는 연금조치로 5년간 귀국을 막았습니다. 그는 新중국 정부와 미국이 6.25 전쟁 때 포로로 잡힌 미군 조종사들과 맞교환하는 담판절차를 거쳐 1955년 환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목도하는 新중국의 미사일과 핵무기 운반체계발 및 인공위성발사를 성공시킨 일등 애국자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감명을 준 것은 서류가방 하나를 고치고 고치면서 50년간 사용했다는 검소함과 일생동안 7가지 生活信條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조의 제1호가 ‘회호 안 쓰기’(戲書하지 않음)였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에 중국과 일본은 모두 자신들의 문자생활에 반성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해서한자의 “傳來필획수를 줄인 한자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필획수를 줄인 한자사용”은 一面 戲書탐닉의 사회병폐에 대한 制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周恩來(저유언라이) 수상이 한자의 필획수를 줄이는 한자개혁의 구상을 同病相憐(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일본에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신중국의 미래를 경시한 일본은 매우 미온적이었다는 기록을 읽어 보았습니다. 인류사회의 발전에 정치지도자의 ‘마음속에 품은 한 가닥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錢學森(전학삼)의 애국심과 周수상의 실용주의 정신에 영향을 준 것은 중국현대사상가 魯迅(노신/루쉰: 본명은 周樹人)이었다는 것은 不問可知입니다.

우리나라는 國字인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자의 正字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고 “필획수를 줄인 한자사용”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전래의 한자약자, 新중국의 한자개혁(간체자도입)과 新일본의 문자개혁(略字도입)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자교육에 투신할 당시 시중출판물은 우리나라 전래의 繁體한자와 약자, 舊중국의 繁體한자와 약자, 일본번체한자와 新일본의 한자略字體를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有志들은 후학들이 겪는 문자생활에 대한 혼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려스런 과제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의 연대로 민간단체인 “한국어문화”를 결성하였던 것입니다.

중화문명의 상징인 한자는(한글처럼 나라에서 반포하여 보급된 글자가 아니라)오랜 세월에 걸쳐 농경사회를 영위한 문자대중의 필요와 사용에 의해 형성 발전된 表意문자(ideographs)입니다.

한자사용의 출발은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상형화) 만들거나,또는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고 나타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어(형상화)만든 상형문자이었지만, 한자의 造字아이디어(원리)가 指事 會意 形聲의 비상형원리로 확대되어 현재 상형한자출신은 전체 한자의 2.5%에 불과하고 97.5%의 한자는 그 생성의 출발이 가시적 형태와는 무관한 비상형문자출신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에는 비록 그 한자가 상형문자로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그 한자가 만들어질 때 나름대로의 의미와 성격을 갖춘 형태였다 할지라도 그런 요소들은 시간의 풍화 속에서 또한 한자모양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변형을 만들어 대부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자 모양에서 어떤 상형성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衒學的인 일인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한자교실에 수업 등록을 하는 것은 언제나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강권으로 공부를 합니다. 한자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부모의 판단입니다. 어느 날 새로 등록한 초등 4학년인 한 어린이가 나의 한자수업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당돌하게 다음과 같이 항의를 했습니다.

“한자는 모두가 물건과 동식물 그리고 자연을 본 뜬 글자이고 馬는 말의 모양을 본 뜬 것입니다. 선생님은 왜 한자 마다 무엇을 본 뜬 글자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사스럽지 않은 학생과 질문내용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한자가 무엇을 본 뜬 글자”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의 한자공부를 망쳤던 것입니다. 한자선생을 포함하여 어른들은 어려운 한자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흥미유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흥미유발 학습이 지나치면 바로 학생들을 오도할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모든 한자는 상형문자’라는 위 어린이의 고정관념입니다. 그 어린이의 고정관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자이신 공자님이 왜 繪事後素(회사후소: 교육은 백지상태에서 효과를 낸다)를 강조 하셨는지를 일깨워준 그 어린이의 질문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한자수업의 흥미유발은 한자모양의 상형 성에 집착하여 작위적 설명을 하기 보다는 “다음의 例示‘처럼 한자를 조립하는 부수한자와 구성한자에 대한 創造的 說明을 엮어 또는 약간의 臆測破字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優는 人과 憂로 大分되는바, 사람은 넉넉함(優) 속에 근심(憂)이 있다는 놀라운 경종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예시).

나는 여러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로 녹양동한자교실 운영 외에 복지관이나 문화원 등 사회 교육기관에도 출강하였는데, 이곳에 수업 등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각계각층의 다양한 壯年과 老年층이었습니다. 이들 수강생들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한자공부습관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 化石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생각과 습관이 완강한 분이나 선생의 실력을 떠보려고 갖가지 짓궂은 시도를 하는 분과 조우하였을 때는 특별히 언행을 조심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2010년 6월부터 강의하여 온 ‘도봉문화원’에서 어느 날 중국관광을 다녀온 분이 내 실력을 떠보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북경의 紫禁城(자금성: 쯔진청)은 왜 하필 城 이름을 ‘紫禁’이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은 다행스럽게도 나가 통일부 재직 시에 중국출장이 계기가 되어 이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자 그 수강생은 옆 사람과 수군거리며 말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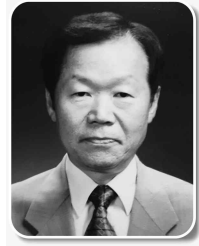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영락제는 왕조의 威光을 만들려고 자금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참된 마음을 붉은 마음(丹心)이라고 하며 참된 충성을 丹忠이라 합니다. 참된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恒心)이고 정성과 희생의 마음입니다(誠心).

고려 말 충신인 정몽주의 丹心歌(단심가)는 이방원이 何如歌(하여가)를 빌려 호소한 정치적 동맹제안을 거부하고 고려왕조에 대한 붉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빛(紫 color purple)은 파랑색과 붉은색의 混色이어서 두 마음(二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정통사상에서 이탈한 수정주의를 紫色主義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은 ‘황제에게 두 마음을 갖는 不忠한 자는 이 城에 들어오지 말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은 나의 작위적인 私見입니다.

漢詩

登南漢山城

(남한산성에 오르다)



淇竹 金錫珍  
(운영위원)

晚秋逢友馬川隅  
만 추 봉 우 마 천 우

늦가을에 친구들과 마천동  
모퉁이에서 만나

南漢山城緩陟徒  
남 한 산 성 완 척 도

남한산성에 천천히 걸어  
올라가니

萬古樹林黃葉染  
만 고 수 림 황 엽 염

만고의 수림은 누런 잎으로  
물들어 있고

千年壘壁碧苔糊  
천 년 루 벽 벽 태 호

천년 성벽은 푸른 이끼로  
덮여있네

將臺宗廟御營地  
장 대 종 묘 어 영 지

수어장대는 종묘를 어거하는  
본영이요

社稷行宮危亂都  
사 직 행 궁 위 란 도

사직이 있는 행궁은 위란시의  
도읍이었지

往負更思招憾悔  
왕 부 갱 사 초 감 회

지난 수치 다시 생각하니  
한과 후회만 불러오고

前非回顧惹嗟吁  
전 비 회 고 야 차 우

옛 잘못을 회고 하노라니  
한탄만 일어나네

書 畫

효 행



고성용  
(서 화 가)





김동배  
(서화가)

## 清風自遠



\*제호의 뜻 : 맑은 향기는 스스로 멀리 퍼져 나간다.





## 건강코너

### 코로나 시대, WHO가 제안한 새로운 '운동지침'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성인이라면 누구나 매주 150~30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100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나 장애인도 포함된다.

WHO는 이전에 18~64세 건강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매주 최소 150분의 중등도 운동이나 75분의 격렬한 운동을 권장해왔다.

새로운 지침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하루 평균 60분 이상 운동해야 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균형감각에 초점을 맞춘 운동을 추가로 시행하기를 권장했다.

건강상의 이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주요 근육을 모두 단련하는 근력운동을 중등도 혹은 격렬한 정도로 시도하라고도 했다.

WHO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심장병, 당뇨병, 암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을 줄이고 기억력과 뇌 건강을 개선한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수명을 수년 이상 늘릴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 매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체적 활동은 단순히 스포츠나 레저활동뿐 아니라 밭에 물주기, 청소하기 등 가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헬스조선)

##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자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과도한 불안은 우리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소진시켜 면역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세요.**

불확실한 정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뉴스를 백번 본다고 내게 필요한 정보가 백번 얻어지지 않습니다.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혐오는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우리의 적은 감염병이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4.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전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타당한 반응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압도되고 특히 불면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신종 전염병은 많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감염 위기 상황에서는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7.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긍정적 감정과 행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위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매일 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8.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9.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낮지만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에게 높은 위험을 보입니다. 주변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0. 우리 서로를 응원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기는 힘은 사회적인 신뢰와 연대감입니다. 악플이나 댓글 대신 감사의 글과 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